

# 가스보일러 생산량 회복세

## 10월 5.9% 증가...4분기 2.8% 늘어나면 100만대 돌파

2/4분기와 3/4분기에 14% 가량 감소했던 가스보일러 생산량이 4/4분기로 들어서며 회복세를 나타내 100만대 돌파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4분기 첫 달인 지난 10월의 경우 10만7544대를 생산해 지난해 같은 달 10만1504대보다 5.9% 증가했다. 이는 올해 가스보일러 생산량 100만대를 넘어서기 위해선 4/4분기에만 2.8%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분석에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 1~3분기 가스보일러 누적 생산량은 68만2855대로 지난해 동기 75만150대보다 9% 감소해 4분기에 32만대 가량을 생산하지 않는 이상, 올 한해 가스보일러 생산량 100만대 수준은 어렵다는 진단이었다. 32만대 생산은 2.8% 이상 증가해야 가능하다.

애초 업계는 “올 4분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가스보일러 생산량이 될 것”이라고 예견해 올

해는 사상처음 100대를 밑도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에서 “예년보다 따뜻한 봄날씨 탓으로 봄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시장이 잠깐 위축됐을 뿐 가을이 지나면서 보일러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또 다른 분석이 맞아 떨어졌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추위가 오고 엘니뇨 현상이 기승을 부려 기온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가스보일러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견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기름보일러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락할 것으로 예고됐음에도 10월에 1만9864대를 생산해 지난해 같은 달 1만8895대 보다 도리어 늘었다. 기름보일러는 매년 큰 폭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올해는 지난해 생산량 23만4312보다 30% 가량 줄어든 15만대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회원서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온수온돌기능사 및 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그리고 그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품위유지와 기술의 향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주택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의 기술육성과 사업증진에 목적을 두고 기술세미나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협회지를 통하여 신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온돌문화의 계승과 건전하고 쾌적한 난방문화를 창출하고자 우수한 난방시공인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중앙회 TEL(02)3401-1497,8 FAX(02)407-3790 각 지부지회 및 분회

**입회원서**

성명	_____
성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직업	_____
주요경력	_____
입회신청사유	_____
비고	_____

본 협회는 온돌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노력하며 온수온돌기능사 및 난방시공인과 가스시설시공인과 그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품위유지와 기술의 향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주택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 10. 01

국 민 회 장 \_\_\_\_\_

전국보일러설비협회장 귀하



## 가스보일러 내수 소폭 위축 · 수출은 활발 효율등급 일원화 진일보 · 온돌벌 시공기준 마련 성과 거둬

지난 한해 보일러시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였다. 다만 보일러 제작사들이 환기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먼저 올 해 가스보일러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3~5만 대 정도 줄었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올해 가스보일러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판매량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95만대 선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성과는 괄목할만했다. 러시아 등지로 많이 판매된 올해 1~3분기 가스보일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했고 가스 온수기와 난방기 등도 각각 125.5%와 26%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 ◆콘덴싱보일러-소비효율등급 일원화로의 지평을 열다

보일러 산업의 오랜 갈등을 제공하던 소비효율등급 일원화와 관련해 연구 작업이 본격화됐고 제조사간의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도 성과로 기록할 만 하다.

콘덴싱보일러는 관련 시장에서 2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보일러와 분리되어 있는 효율등급 일원화를 염두에 둔 연구용역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중이다.

만약 그 결과로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간의 효율등급이 일원화되기로 결정된다면 열효율이 높은 콘덴싱보일러의 효율등급이 1등급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듯 그간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하지 않았던 귀뚜라미보일러에서 관련 시장에 참여한 상태이고 이와 동시에 기존 타입과는 전혀 다른 비례 제어방식의 보일러를 출시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귀뚜라미보일러는 보일러 업체로는 처음으로 '출광21' 가스보일러에 전 국민적인 리콜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보일러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대목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 비해 동 가격은 다소 떨어진 반면 보일러의 주재료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가 인상요인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고 제조원가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많게는 10% 정도 적게는 6% 정도 보일러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용 콘덴싱보일러 개발 시작되다

지난해는 콘덴싱보일러가 해외로 수출되기 위해 한국형 콘덴싱보일러 제조에 기계연구원과 6개 제조사들이 단합을 이뤄내기도 한 해였다. 오는 2009년 10월까지 총 3년의 기간동안 정부와 민간투자금액 70억8000만원이 투입된 '고효율 친환경 가정용 콘덴싱 가스보일러 개발' 연구과제는 현재 2차년도 까지 진행됐다. 이번 과제의 가장 큰 목표는 90% 이상의 고효율이 보장되고 친환경성을 높이는 데 있다. 즉 열효율은 90% 이상, Nox는 50ppm이하 CO는 40ppm 이하를 지향한다.

한국기계연구원 김석준 박사는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해도 유럽의 일류기술과 바로 경쟁할수는 없지만 향후 5년후쯤 50만대 수준까지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심야전력제도 영세 보일러제조사들의 발목을 잡다

올해는 심야전력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축소가 예고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심야전력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을 포함한 50여개의 보일러제조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심야전력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가자 심야보일러에 대한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현재는 타 업종으로 전향하는 영세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향후 제도폐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두고 봐야하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제조업체쪽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